블록체인이 커먼즈를 어떻게 촉진하는가?

- 저자 : Samer Hassan((Associate Professor at Berkman Center at Harvard Univ. & Univ. Complutense de Madrid))
- 원문 : “Can the Blockchain Facilitate Commons Governance? Exploring Alternative Blockchain Narratives“ (2018.08.27)
- 분류 : 일부 내용 소개
- 정리자 : 정백수

하싼은 이 슬라이드의 뒷부분에서 블록체인의 여섯 가지 특징을 말한 후 이 특징들 각각이 오스트롬의 여덟 가지 커먼즈 설계원칙 가운데 어떤 것을 촉진하는지를 표로 보여준다.

이미 다른 게시글에서 소개한 여덟 가지 커먼즈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.

① 경계의 명확한 설정

② 지역 조건에 맞춘 규칙들

③ 참여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

④ 모니터링

⑤ 등급별 제재

⑥ 갈등해소 메커니즘

⑦ 상위 권위로부터의 인정

⑧ 여러 층으로 중첩된 거버넌스

블록체인의 여섯 가지 특징

① 토큰 사용

② 자기구속적 시행(self-enforcement) 및 형식화

※자기구속적 시행 : 계약을 한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시행됨

③ 자율적 자동화

④ 기반시설에 대한 권력의 탈중심화

⑤ 투명화

⑥ 신뢰의 코드화

커먼즈를 촉진하는 블록체인

	토큰 사용	자기구속적 시행	자동화	탈중심화	투명성	신뢰의 코드화
확연한 경계	□					
지역에 맞춘 규칙	□			□		
참여적 의사결정	□			□		
모니터링		□	□	□	□	
등급별 제재		□	□			
갈등 해결 메커니즘			□		□	
상위 당국으로부터의 인정		□		□		□
중첩 구조			□			□

♣